

물놀이 하던 고교생 2명 숨져

영평천 사은교 부근 4일동안 4명 익사

지난 2일 포천시 영평면 양문리 영평천 사은교 부근에서 친구들과 물놀이 하던 고교생 9명 가운데 7명이 구출되고 1명이 사망하고 1명이 실종됐다.

이번 사고는 방학을 맞아 친구사이인 9명(포천고 5명, 포천일고 3명, 의정부공고 1명)이 영평천으로 물놀이 왔다가 변을 당했다.

목격자들에 의하면 사은교에서 100여m 떨어진 모래사장에서 하천 중앙에 있는 바위까지 수영으로 5명이 건너갔다. 이어 3명이 수영으로 건너가던 도중 수영미숙으로 수심 2.5m-4m 지점에서 2명(노오, 포천고 1학년 17세, 이오, 포천고 1학년 17세)이 사망하고 물위에 떠있던 김00(포천고 1학년 17세)군은 이곳을 지나던 포천시가 용역을 의뢰한 영상감시시스템 직원에 의해 구조됐다.

사고가 발생하자 오후 1시57분경 포천소방서 구조대와 시민안전봉사대원 등 73명이 출동해 바위에

있던 5명의 학생들을 안전하게 대피시키고 실종자 수색에 들어가 오후 3시30분경 사고지점에서 50m 떨어진 물속에서 노오군의 시신을 찾았다.

이어 숨진 것으로 추정되는 이오군의 시신을 찾기 위해 사고지점 일대를 정밀수색했다. 고교생 2명이 숨진 사고 부근에서 지난달 30일 가족과 함께 성묘를 마친 뒤 영평천에서 물놀이 하다 물에 빠진 아들(12세 초등6학년)을 구하고 급류에 휩쓸려 실종됐다가 결국 숨진 채로 발견된 김모(38세, 서울 상도동)씨 사고지점과 동일한 장소다.

이같이 물놀이 사고가 빈번히 발생하자 포천시는 영평천 사은교와 산삼교 아래 일부 지점을 지난 3일부터 이달말까지 피서객들의 출입을 통제한다고 밝혔다.

시는 이 지역에 현수막과 안전선을 설치해 피서객들의 진입을 막고 의용소방대와 자율방범대, 자원봉사



지난 2일 포천시 영평면 양문리 영평천 사은교 부근에서 친구들과 물놀이 하던 고교생이 물에 빠져 숨졌다. 시신은 포천소방서 119구조대원들이 실종된 고교생들을 수색하고 있다.

대원들이 교대로 오전 10부터 오후 6시까지 순찰활동을 펼치고 있다.

또 시는 익사사고의 주요 원인으로 추정되는 하천 중앙에 있는 길이 4m, 너비 1.5m 바위를 폭파시켜 바위까지 수영하는 피서객을 방지키로 했다.

익사사고가 빈번한 영평천은 장마로 인한 수심이 깊어지고 물살이 빨라져 지난달 30일부터 지난 2일까지 모두 6명이 물에 빠지는 사고가 발생했고 그중 4명이 숨졌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신북은천 주변 광산 개발 주민반발

S광업 행정기관 불認可 소송제기 승소판결 주민들 주변일대 관광지 환경훼손 우려제기

4계절 관광객이 끊이지 않는 포천시 신북은천 주변 지역에 5천여평 규모의 규석 광산이 들어설 것으로 보며, 환경훼손 및 각종 공해발생과 이에 따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채광 예정지역은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산 219, 220-1, 231번지 등 3필지 1만6천168㎡로, 인근에 신북은천과 허브아일랜드, 열두개울 등 유명 관광지가 위치해 있다. 또 1.5km 떨어져 있는 신북면 금동리 '지동마을'은 복합 산촌 관광지로 조성되고 있다.

채광권자인 S광업 측은 세 번에 걸친 채광계획인가 신청 끝에 올해 5월 9일 경기도로부터 불인가 처분을 받게 되자 행정심판을 청구했고, 산업자원부 광업조정

위원회가 이의를 받아들여 지난 달 28일자로 채광계획이 인가됐다.

이번에 채광이 인가된 3필지는 1974년 이미 규석 광산으로 허가를 받은 뒤 광산으로 계속 운영돼 오다가 1981년에 허가가 갱신되지 않음에 따라 현재는 자연림 상태를 유지하고 있다.

이와 관련해 포천시는 광산에서 자연림으로 복구했다가 다시 광산으로 형질이 변경될 경우, 토사유출과 환경 훼손의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고 경기도가 의뢰해 온 채광인가계획 협의의 건에 대해 절대 불가의견을 제시한 바 있다.

포천시 관계자는 "국토 및 자연의 유지와 환경보전 등을 위해 채광 예정지를 그대로 두는 것이 옳다고 판단해 불가의견을 제출

했었다"고 밝혔다.

포천시 신북면 덕둔리 주민들은 마을 인근에 광산이 들어서는 것에 대해 반대 입장을 분명히 하고 있다.

광산이 생길 경우 덩크포터 출입 등으로 인한 소음과 먼지, 그리고 폐수, 산사태 발생 등이 우려되며 장차 채광이 끝나고 폐광산이 된 후에도 환경오염을 유발할 수 있다는 것이다.

주민들은 특히 채광예정지 주변이 신북은천과 열두개울 등이 있는 관광지라, 경관이 악화되는 것은 물론 특히 여름철 많은 피서 인파가 몰려오는 때에 열두개울에 탁류가 흘러내리면 행락객이 줄어 주민소득이 감소할 것이 불을 보듯 뻔하다며 깊은 우려를 나타내 보이고 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포천시 신북면 열두개울에서 행락객들이 피서를 즐기고 있다. 이곳 인근에 5천여 평 규모의 규석 광산이 들어설 것으로 보며, 환경훼손 및 각종 공해발생과 이에 따른 관광객 감소를 우려한 주민들의 반발을 사고 있다.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 운영

올 연말까지 최저임원 시급 3천100원 적용

의정부노동지청(지청장 시민석)은 지난 1일부터 오는 31일까지 최저임금 준수 강조기간으로 설정하고 사업장 지도 및 홍보를 할 계획이다.

최저임금은 근로자를 사용하는 모든 사업장에 적용되며, 지난 2005년 9월1일부터 12월31일까지 적용되는 최저임금은 시간급 3,100원 (8시간 기준 일급 24,800원)이며 고용주는 최저 임금액 이상의 지급의무가 있다.

또한 사업주는 개정근로기준법 시행에 따라 근로시간이 주44시간에서 주 40시간으로 단축되는 경우에도 단축 전 근로시간에 따른 최저임금액을 받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최저임금 산정시 제외되는 금품으로는 ▶매월 1회 이상 정기적으로 지급되지 않는 임금(상여금, 체력단련비 등) ▶소정근로시간 또는 근로일에 대하여 지급되지 않는 임금(연월차수당, 유급휴일, 연장, 야

간근로수당, 일속직 수당 등) ▶생활보조적, 복리후생적으로 지급되는 수당(가족수당, 통근수당, 급식비 등) 등이 있다.

의정부노동청 관계자는 "이번 강조기간을 통해 근로조건이 열악한 최저임금이하 수준에서 일하는 영세사업장 근로자들의 보호가 한층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하승원 기자 forme65@paran.com

특별기고

흙건축 - 흙벽돌(Adobe) 공법

장덕철
해동 흙건축 학교장



이번 회에서는 과거와 현재를 통하여 전 세계적으로 가장 많이 사용되고 있는 흙건축의 공법인 흙벽돌 공법(adobe)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말씀드리기로 하자.

흙벽돌을 사용한 가장 오래된 유적은 기원 전(B.C.) 2700 년 경으로 추정되는 이스라엘의 제리초(Jericho)마을의 집들과 요새라고 한다. 그리고 중동지방의 거대한 흙건축물에 대한 기록이 남아있다. 그리고 아프리카와 남미 그리고 중국에도 흙벽돌로 지은 수많은 건물들이 현재까지 존재한다.

여기에서 잠시 하던 이야기를 멈추고 잠시 다른 이야기를 하고 넘어가기로 하자. 건축을 이야기하려면 <학-역학>에 대한 지식이 꼭 필요하며 중요하다. 예를 들어 삼중벽화점과 성수대교가 무너진 것은 구조적이고 재료적인 힘의 법칙을 무시한 공사의 결과이다.

건물에 작용하는 힘에는 크게 두 가지가 있다. 즉 압축력과 인장력이다. 압축력이란 누르는 힘

을 말하고 인장력이란 잡아당기는 힘을 말하는데 흙벽돌은 잘 건조가 된다면 비교적 압축력에는 강한 힘을 발휘한다. 그러나 양쪽에서 잡아당기는 인장력에는 매우 취약한 특성이 있다. 무슨 이야기인가하면 조금 길게 만든 흙벽돌을 의자와 의자 사이에 걸쳐놓고 위에서 누른다면 그 흙벽돌은 어느 시점에서 돌로 쪼개지고 만다. 이때에 걸쳐놓은 흙벽돌의 뒷면에 작용하는 힘은 양쪽에서 누르는 힘, 즉 압축력이 작용하고, 앞면에 작용하는 힘은 양쪽으로 벌어지는 힘, 즉 인장력이 작용하게 된다. 흙벽돌이 돌로 쪼개질 때 뒷면과 앞면 면 어느쪽이 벌어질까. 그것은 백이면 백 아랫면 즉 잡아당기는 힘, 즉 인장력이 작용하는 면이다. 이러한 특징은 콘크리트도 마찬가지이다. 그래서 콘크리트에는 철근을 넣어서 인장력을 보강하게 되고, 흙벽돌에는 지푸라기를 넣어 인장력을 보강하게 되는 것이다.

또한 흙벽돌은 건조되는 과정

에서 <건조 수축>이라는 현상이 일어난다. 즉 물이 차지하고 있던 용적이 물이 증발하고 나면 그만큼 비게 되는 것이다. 이때에도 지푸라기는 건조 수축으로 인한 크랙(crack - 금이 가는 현상)때문에 발생하는 벽돌의 쪼개짐을 방지하는 역할을 한다.

기계가 발명되기 이전의 흙벽돌은 직접 손으로 만들거나, 나무로 만든 틀에 흙과 볏짚의 난죽을 넣어서 만들었다. 흙벽돌을 만드는 흙의 성분으로 진흙(clay), 나사(silt 泥砂), 흙과 모래의 중간 크기의 입자), 그리고 모래(sand)가 있고, 거기에 짚과 같은 섬유질 보강재를 같이 혼합하게 된다. 여기서 짚(straw)의 역할은 흙만으로 만든 흙벽돌의 약점인 인장력에 대한 취약점을 보강하기 위해서이다.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서, 이상적인 흙벽돌을 만들기 위해서는 흙의 구성 성분이 적당하게 맞아아하는데 실제로는 그러한 조건을 갖춘 흙을 발견하기는 쉽지 않다. 그래서 진흙과 모래

가 섞여있는 흙이면 흙벽돌을 만들 수가 있다고 본다. 진흙만이 있는 흙도, 모래만 있는 흙도 집을 짓는 데에는 부적당하다. 진흙은 콘크리트에 있어서 시멘트의 역할, 즉 본드의 역할을 하게 되고, 모래는 자갈의 역할, 즉 구조의 역할을 하게 된다. 진흙이 너무 많으면 건조하는 과정에서 크랙이 가기 때문에 벽돌이 벌어지고 쪼개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모래가 너무 많으면 흙벽돌이 쉽게 부서지게 된다. 진흙이 많은 흙일수록 첨가하는 지푸라기의 양도 많아지게 된다.

그러나, 요즘에는 예전처럼 손이나 나무를 사용해서 흙벽돌을 만드는 경우는 매우 드물다. 유압을 이용한 흙벽돌 기계로 흙벽돌을 찍어내기 때문이다. 이런 경우에는 지푸라기를 첨가하지 않아도 어지간해서는 흙벽돌에 금이 가거나 쪼개지는 일이 없다. 다만 이 때에도 지푸라기를 섞어서 벽이 <숨을 쉬도록> 해주어야 한다는 주장도 있다.
필자연락처 : 011-628-4214

60일간의 프랑스여행

“아인스월드에서 프랑스의 모든것을 만나보세요~이제 당신이 파리지앵입니다!”

프랑스 문화에 빠져-법시대

- 감미로운 선율의 밤
 - 고풍미에 감화되는 노랑기와의 낭만
- 감미로운 프랑스 음식의 향연
 - 와인과 크레페의 멋진 만남
- 재미있는 연극공연
 - 프랑스어로도 해는 연극은 어떻게? 연극으로 느껴보세요~

여러언어는 프랑스에서~

- 어린이를 위한 인형극
 - 프랑스의 풍수예행
 - 인형극 공연을 통해 규칙적인 식습관을 깨우쳐주세요~
- 환상의 물놀이
 - 자네르노기 하나내며 즐기는 여름다운 휴식
- 피자 도우 Show!
 - 피자 반죽을 이용한 화려한 쇼 (Mr.Pizza 드림팀 출연)

즐거움이 함께하는 아인스월드!

- 폼미로드 키예 미션도
 - 재미있게 / 재미있게/ 재미있게
 - 살아 움직이는 풍물 마임쇼
- 민법의 아인스월드
 - 노랑기와의 즐거운 만남
 - 재미있는 풍물쇼
 - 밤하늘의 화려한 풍물놀이
- 모토콘 미션도
 - 프랑스 자네르노기 하나내며 즐기는 여름다운 휴식
 - 재미있는 풍물쇼
 - 재미있는 풍물쇼
 - 재미있는 풍물쇼

사진찍고-파리까지!

아인스월드의 즐거움 추억을 사진에 담아 직접 파리로 떠나는 신나는 사진 콘테스트

1등 프랑스 7박8일 여행권!! (미션권) 디지털 카메라, 무료항공권 등 (이벤트 대상은 추첨을 통한 선정)

후원

세계최고건축물 테마파크 아인스월드
부천시 원미구 상동 529-2번지
대표전화 032-320-6000
www.ainsworld.com
인터넷 검색창에 아인스월드를 쳐보세요! 행운이 쏟아집니다!